

현대 대중매체에 나타난 롤리타룩에 관한 연구

고윤정[†] · 김민자*

코오롱 패션산업 연구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Lolita Looks Revealed in Modern Mass Media

Youn Jung Ko[†] · Min-Ja Kim*

Fashion Institute of Kol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9월 23일), 수정일(2009년 1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3월 22일)

Abstract

“Lolita,” a novel by a Russian-American novelist, Vladimir Nabokov,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1955. As it gained wide fame across culture, it has exercised a great influence, altered or developed to diverse forms. Lolita, the title of the novel as well as the heroine's name, now takes a significant part in our society through all cultures and is used as various meanings and symb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nalyze and reinterpret the current use of Lolit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itially portrayed in Nabokov's novel. The traits of the heroine were categorized into purity, seductiveness, and dualism and the commercial use of each in the mass media and fashion in Korea was closely examined. First, purity was interpreted as the archetypal image of a 12-year-old girl, while seductiveness was construed to involve temptation and enticement, ultimately leading a man astray. The dualism of an under-aged sexualized nymphet delineated in the novel as a poor little girl as well as a depraved temptress was stated as another trait of Lolita.

Key words: Lolita look, Purity, Seductiveness, Dualism; 롤리타룩, 순수성, 요부성, 이중성

I. 서 론

롤리타는 1955년 러시아 출신의 미국인 소설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이자 여주인공 이름으로 최근에는 롤리타는 유희과 수줍음, 아름다움과 천박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추문까지 동시에 환기시키는 일종의 보통명사이자 사회적인 아이콘으로 유행하고 있다(모리스, 2001/2003). 출판 당시 롤리타는 도덕적인 문제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김경선, 2004). 즉 충격적인 내용과 선정적 주제라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판매금지 되었으나 베스트셀

러가 되었고, 그 후 이를 소재로 한 2편의 영화가 만들어 지면서 하나의 코스프레 장르로, 패션의 아이콘으로, 동안이나 로맨틱룩을 설명하는 패션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 롤리타를 검색하면 패션과 심리학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동안열풍에서부터 외설문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롤리타에 대한 해석을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설 속 여주인공 롤리타는 ‘돌로레스의 애칭’에서 ‘유희적인 미성숙한 소녀’로 의미가 전환되면서(김경선, 2004), 미성숙한 소녀에 대한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롤리타 콤플렉스로부터, 롤리타신드롬, 롤리타룩, 롤리콘, 님펫 등등의 많은 신조어, 파생어를 만들어 내면서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는 인간의 희망이자 비밀스런 욕망의 분출 등의 개념으로 사회 문화적 전반에서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unjungko@yahoo.co.kr

본 연구는 2009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롤리타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모호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많은 영화나 광고 등의 대중문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패션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롤리타 룩을 비롯하여 여러 로맨틱 모드 또는 코스프레를 설명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그리고 김연아 등이 '가요계의 요정'과 '은반의 요정'으로 국민적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시니컬하면서도 반항기 어린 표정에서 나오는, 즉 어린 소녀이면서도 동시에 어린 소녀답지 않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매력을 특성지어 본다면 충분히 소녀적 감성과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발산할 줄 아는 '섹시한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섹시한 걸'이 각광받는 현상은 미성숙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동경하는 일종의 '롤리타신드롬'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롤리타는 21세기의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롤리타룩을 처음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패션을 중심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롤리타에 대한 문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학문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선, 2004; 김은영, 2005; 김은진, 2001; 김희경, 2004; 손진숙, 2002; 정진만, 1993). 하지만 패션에 있어서 롤리타는 최첨단 트렌드를 이끄는 상위문화로부터, 대중적인 패션, 특수집단의 하위문화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패션에 적용된 롤리타룩에 대한 학문적이고,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다양하게 해석, 사용되고 있는 롤리타를 그 기원인 처음 소설에 등장한 롤리타의 특성과 시각적으로 영상화된 영화에서 표현된 롤리타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롤리타룩의 패션특성이 최근 국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0대의 대중스타들이 인기를 누리는 현재, 우리사회 내면에 감추어진 롤리타 신드롬의 영향을 패션측면에서 재조명하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소설 롤리타를 영화화한 1962년과 1997년 2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62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가 흑백영화인데 반해 1997년 에드ريان 라인 감독의 영화는 컬러영화여서, 주로 1997년

의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1962년의 영화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롤리타룩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국내 대중문화의 사례로는 2007년 데뷔하여 가요계에서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킨 어린 소녀들이 멤버인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를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를 대중문화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롤리타와 비슷한 10대로서 가요계에 데뷔하여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킨 대표적인 그룹이며, 이들의 이미지가 롤리타와 근접하면서도 그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또래의 소녀들의 그룹이나, 소녀시대는 10대의 순수함에 초점을 두었으나 원더걸스는 10대 소녀들의 순수함과 더불어 성숙한 섹시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II. 소설 롤리타 분석

1. 롤리타의 소설내용

소설 롤리타는 살인을 저지른 중년의 한 남자가 감옥 속에서 지나간 일을 회고하며 반성하며 배심원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자백서이다. 유럽 태생의 험버트는 그의 나이 12살때 자신보다 몇 달 연상인 아나벨을 사랑하게 되나, 어른들에 의해 그 첫사랑을 잃고 그 때문에 강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편집광적 인물이다. 그는 오직 어린 소녀에게만 매혹되었고 그 소녀들을 스스로 '넵셋'이라 불렀다.

아내 발레리아의 불륜으로 첫 결혼을 실패한 후 미국으로 온 험버트는 웹스테일이란 마을에서 과부 샤토틀와 어린 딸 돌로레스 헤이즈가 사는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다. 헤이즈는 하숙집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사는 12세 소녀로 도덕관념이나 성관념 등이 다소 회박한 아이로 묘사된다. 롤리타는 험버트가 헤이즈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이 상상으로 설정한 욕망의 대상인 넵셋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넵셋을 롤리타라고 불렀고, 돌로레스 헤이즈는 최고의 넵셋인 롤리타가 된 것이다(정진만, 1993). 롤리타를 은밀히 시각적으로 즐기는 생활을 하던 험버트는 롤리타의 합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 샤토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법적인 양아버지가 된다. 그러나 롤리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샤토틀를 증오하게 되며 그런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고, 우연히 그 일기를 본 샤토틀는 그 충격으로 뛰어나가다

차에 치어 죽게 된다.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롤리타를 차지하게 된 험버트는 들어서 미국전역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게 된다. 첫날밤을 ‘매혹된 사냥꾼들’이란 호텔에서 보내게 되며 그들은 여기서 처음으로 육체관계를 맺는다. 여행을 마치고 비어드슬레이라는 동부대학도시로 돌아와 롤리타는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곧 학교생활과 연극에 싫증이 난 롤리타는 다시 여행을 제안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부터 누군가의 추적을 받게 된다. 험버트는 누군가를 의식했지만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정체불명의 남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롤리타를 빼내어 사라지게 된다. 추적을 계속하였으나 실패하고 표면적으로 롤리타를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 한동안 살지만 결코 롤리타를 포기하진 않았다. 그러던 중 롤리타로부터의 편지가 도착하고, 그는 그녀를 찾아간다. 롤리타는 17세가 되었고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은 사내의 부인으로 만삭의 몸이었다. 험버트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것을 애원하나 거절당하면서 롤리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녀를 불행으로 이끌고 자신에게서 롤리타를 빼앗은 사람이 킬티임을 알아내고 그를 찾아내 권총으로 쏘 죽이고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는 비극적 내용이다.

2. 롤리타의 성격특성과 롤리타룩

롤리타는 중년남자주인공의 10대 소녀인 롤리타에 대한 사랑과 증오를 적은 소설로 변태로 치부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대한 중년남성의 소아성애, 외붓아버지와 양딸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두 가지 부정적인 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롤리타는 험버트가 처음 만난 당시 12세의 소녀로써 험버트의 용어에 따르면 님펫에 속하였다. 하숙집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십대 소녀로 외양으로 보이기엔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이다. 그러나 평범하고 얌전한 소녀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의 권위 등에 대해 조롱하는 제멋대로인 성격의 소녀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 나이 또래의 천진난만한 순수함과 무시무시한 천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혹적인 님펫으로 ‘악마적’이라 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님펫은 어린아이/요부로 이분화하여 순수와 천박함의 기묘한 융합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김경선, 2004). 나이에 비해 성숙한 몸매,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천박한 면

이 있는 외모, 아직 발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적 육체, 깊이 서려있는 장난기 등이 롤리타의 님펫적 매력을 대표한다(정진만, 1993).

그녀는 험버트를 만났을 당시 12세였는데 이미 성적으로 성숙한 나이였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험버트와의 첫날밤에도 정작 유혹한 것은 롤리타 쪽이었으며, 그 이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십분 이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10대 소녀로써 장난기 많고 산만하며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며 번덕스러운 아이였다. 이상적인 고귀한 여인상과는 거리가 먼 유치하고 천박한 소녀인 롤리타는 딸에서 정부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정부의 요부스러움과 순진난만한 아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롤리타는 다분히 이중적인 성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순수성과 요부성이라는 상반된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체의 성격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롤리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소설 롤리타에 나타난 롤리타의 성격적 특성을 순수성과 요부성, 그리고 이중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패션의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순수성은 아직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10대 소녀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2세의 평범한 소녀로써의 돌로레스 헤이즈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순수함, 순진함을 표방한다. <그림 1(1)-1(2)>에서와 같이 주로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소녀스러운 패션으로 나타나지며 사랑스럽고 귀엽고 장난기 있는 이미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요부성은 험버트의 정부로써,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팜프파탈의 모습을 대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녀는 12세의 어리고 미약한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험버트를 먼저 유혹하고 자신의 요구를 채우며 결국에는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전형적인 요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부성은 패션에 있어서는 <그림 2(1)>에서 보듯이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과 노출, 강한 메이크업으로 주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성은 어린아이이면서 성인여성애 버금가는 신비스럽고 섹시한 매력을 표현한다. 이는 님펫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린 소녀이면서 성숙한 여성의 이중적 모습을 내포한다. 이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어린 롤리타가 번진 립스틱을 바른채 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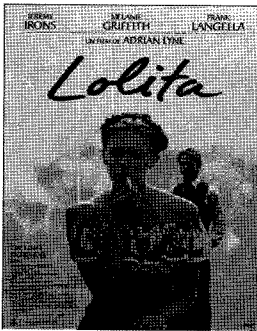


(1) 순수성 1(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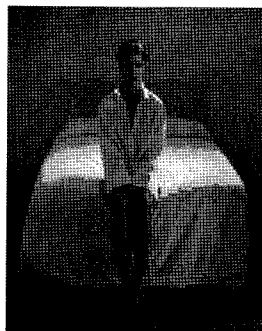


(2) 순수성 2(1997)

<그림 1> 영화 롤리타의 순수성 이미지 1



(1) 요부성 1(1997)



(2) 롤리타 이중성 1(1997)

<그림 2> 영화 롤리타의 요부성과 이중성 이미지

하니 앉아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림 2(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방치된 듯, 무심한 듯 연출된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영화 속에서는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립스틱,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스타일로 보여 지고 있다.

III. 대중문화에 나타난 롤리타족의 영향 분석

소설 롤리타에 나타난 롤리타의 성격적 특성을 순수성과 요부성, 그리고 이중성으로 범주화를 하였으며

각 특성에 부합되는 롤리타 족을 영화에 나타난 패션과 연결지어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고, 그것을 윈더걸스와 소녀시대라는 두 그룹을 선정해 우리 대중문화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롤리타족은 영화 롤리타에서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차림으로 세상을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는 순수하고 귀여운 사춘기 소녀의 분위기에 색시한 느낌을 가미한 옷차림으로 정의된다(김은경 외, 2003). 즉 로맨틱한 감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큐트와 색시를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성인과 어린 소녀의 중간에 위치하여 10대 특유의 미묘한 성적 아름다움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1. 순수성

나보코프가 재현한 돌로레스 헤이즈는 평범한 12세의 소녀이다. 그녀는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사한 건강한 여자아이이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본질적으로 그녀가 아이임을 드러내준다(김경선, 2004). 롤리타는 보드랍고 햇볕에 탄 티끌하나 없는 기막힌 피부에, 윤기가 도는 갈색머리, 빨간 사탕을 핥은 것 같은 빨간 입술을 한 12세의 소녀이다(김희경, 2004). 그녀는 험버트가 만들어낸 매혹의 요정인 롤리타와는 달리 달콤한 핫재즈, 스쿼어 댄스, 초콜릿 소스를 발라 끈적이는 아이스크림, 뮤지컬, 영화 잡지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대중문화에 물든 전형적인 미국 소녀이다(김희경, 2004). 샬롯트는 '저 애가 제 아이 로예요'라고 말한 뒤 곧이어 '그리고 이걸 제 백합들이고요'라고 하면서, 자기 딸의 이미지를 사랑의 꽃이라는 순수함의 상징과 겹쳐놓고자 하고 있다(모리스, 2001/2003). 이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에 대한 동경인 롤리타는 여러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으며 로맨틱의 모드 안에서 발전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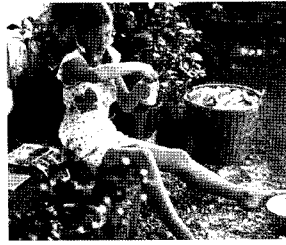
영화 롤리타 안에서도 이러한 순수성을 표현한 패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62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에서의 순수성은 플랫카라의 블라우스, 후두 티<그림 3(1)>, 프릴 장식의 면소재 원피스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1997년 에드ريان 라인 감독의 롤리타에서도 어린소녀의 장난끼 있고 순수한 이미지는 꽃무늬 원피스<그림 3(3)-3(4)>, 화이트 셔츠와 교복 느낌의 자켓<그림 3(2)> 등 깔끔하고 깨끗하게 표현되고 있다. 색상은 주로 화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색상으로 나타나지고 있으며 발목길이의 양말,



(1) 순수성 3(1962)



(2) 순수성 4(1997)



(3) 순수성 5(1997)



(4) 순수성 6(1997)

<그림 3> 영화 롤리타의 순수성 이미지 2



(1) 스쿨룩



(2) 순수성

<그림 4> 소녀시대의 스쿨룩과 순수성 이미지

단화 등과 함께 코디되어서 연출되었다.

이러한 순수성에서의 대표적 이미지는 패션에서 미니 스커트나 캡 슬리브의 짧은 기장의 원피스로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꽃무늬나 도트, 스트라이프의 문양과 프릴, 러플, 셔링 등의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재로는 면, 울 등 천연소재가 많이 사용되어지며 순수함을 강조하는 만큼 화이트를 가장 메인 색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보여진다.

2007년 이후 대대적인 여성그룹 붐을 일으킨 소녀시대는 이러한 순수성을 기본적인 패션코드로 선택하였다. <그림 4(1)>에서는 화이트색을 기본으로 미니스커트와 캐주얼한 점퍼, 스니커즈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4(2)>에서도 역시 화이트를 중심으로 레이스, 프릴, 러플의 디테일이 보여져 로맨틱한 모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긴 생머리나 웨이브 머리와 누드 메이크업, 얇전한 포즈를 통해 순수한 소녀적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요부성

험버트와 첫 관계를 갖게 되는 날, 롤리타는 죄책

감 없이 험버트를 먼저 유혹하는 대담한 요부성을 보인다. 그날 이후 딸에서 정부로 역할이 변한 롤리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유혹할 줄 알며, 흥정할 수 있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강한 소녀로 그려지고 있다. 남캣의 악마성은 인간세계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특히 나이 많은 남자를 유혹한다(김경선, 2004). 로버트슨 데이비스(Robertson Davies)는 이 소설은 교활한 어른에 의해 순수한 소녀가 타락하게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타락한 어린애에게 나약한 어른이 이용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으며(Boyd, 1991),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 역시 이 소설에서 '세련된 성인 유럽 남자를 타락시키는 사람은 순진한 미국 여자 아이라고 지적하였다(Bloom, 1993).

요부란 완숙하고 섹시한 여인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으로 이브의 뱀의 달콤한 유혹을 상징한다. 너무나 강한 농염한 여성성을 품고 있어 남성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며 중국에는 이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매력을 그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롤리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부와 같은 천박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의붓아버지 험버트의 예상과 달리 쉽게 자신의 순결을 버릴 만큼 타락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김은진, 2001). 1992년도 미국 CBS에서 방영된 '치명적인 롤리타(Lethal Lolita)'에서 롤리타로 언급되는 여주인공은 타락한 요부로 등장한다(김경선, 2004). 롤리타의 섹슈얼리티는 너무도 신비로워서 결국 파멸에 이를 때 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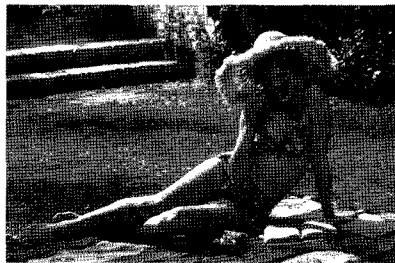
이러한 요부적 패션 즉 팜프파탈룩은 몸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여성적인 신체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패션이다(임현주, 2004). 또한 글래머러스한 이미지와 연결되어 성숙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롤리타에서 보여지는 요부성은 그녀가 아직 10대에 소녀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패션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부성의 특징 즉 인체를 드러내는 실루엣과 과도한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으나 글래머러스한 성숙함이라기 보다는 과도로 꾸민, 성숙해 보이려고 한껏 치장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훔내내어진 요부성이다. 영화 롤리타에서도 역시 요부성의 이미지는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강한 메이크업이나 노출, 몸에 피트한 실루엣을 중심으로 나타나진다. 1962년 스탠드 큐브릭 감독의 롤리타의 경우 롤리타의 첫 등장 장면에서 롤리타는 비키니수영복의 <그림 5(1)> 차림으로 등장하며, <그림 5(2)> 는 연극공연날의 의상으로 강한 스모키 메이크업에 깊은 트임이 있는 스위트 하트 넥크라인의 원피스를

입고 있다.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1997년 롤리타에서도 요부성의 롤리타룩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1962년 영화에 비해 노출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롤리타의 자세와 질은 립스틱, 과도한 노출, 피트된 실루엣으로 요부적 이미지를 연출해 내고 있다(그림 5(3)-5(4)).

일반적으로 요부성, 즉 팜프파탈은 다분히 매력적인 것이어서 상업적으로 많은 부분 이용되어지고 있다. 패션에서의 요부성은 스모키 메이크업에 과도한 노출, 몸에 피트한 실루엣으로 대표된다.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피트함을 강조하기 위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보다 선호되며, 깊게 빠인 브이넥, 헐터넥, 캐미솔 넥라인, 스위트 하트 넥라인과 연결되어 디자인된다. 칼라로는 블랙, 레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골드, 실버 등 메탈릭한 칼라도 선호된다. 광택이 나는 소재로 실크, 새틴, 시폰, 저지, 벨벳, 가죽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호피무늬, 스팅글, 망사스타킹, 선글라스, 장갑, 하이힐 등과 함께 연출되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부의 이미지와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이들의 모습이 성숙한 여인이 아닌 어린 소녀이기에 일반적인 요부의 모습으로 이해되는 성숙하고 글래머러스한 요부성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더걸스는 이러한 10대의 요부성을 아주 세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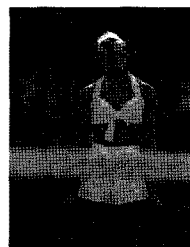
(1) 요부성 2(1962)



(2) 요부성 3(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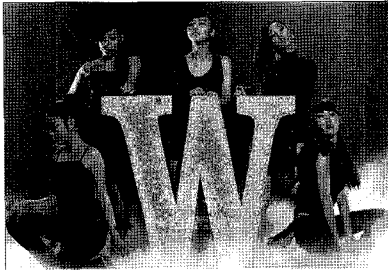


(3) 요부성 4(1997)



(4) 요부성 5(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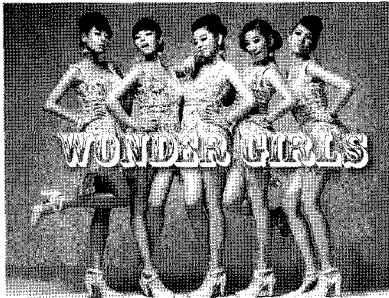
<그림 5> 영화 롤리타의 요부성 이미지 2



(1) 요부성 1



(2) 요부성 2



(3) 요부성 3



(4) 요부성 4

<그림 6> 원더걸스의 요부성 이미지

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6(1)>에서는 요부성의 가장 대표적인 칼라인 블랙을 메인으로 짠 메이크업과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의 미니 스커트, 펜슬라인 펜츠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림 6(2)>에서는 호피무늬를 중심으로 베어드탑, 캐미솔 등 노출이 많은 상의에 피트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6(3)-6(4)>과 같이 레트로 패션을 도입함으로써 1962년 영화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3. 이중성

롤리타에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롤리타가 순수성과 요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님펫의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롤리타에 대한 험버트의 사랑 역시 어린시절 첫사랑 애나벨의 환영인 동시에 또 하나의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이중성을 지닌다. 롤리타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러한 일을 능동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국 험버트를 살인자로까지 만드는 가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반한다. 즉 순수성이 결여된 경박한 인물이면서 또한 애처로운 희생자이기도 한 것이다(김은영, 2005). 이 소설은

비단 롤리타의 성격뿐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과 그들의 역할들에 걸쳐 많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7(1)-7(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님펫의 신화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과 성숙한 여인에



(1) 이중성 2(1997)



(2) 이중성 3(1997)

<그림 7> 영화 롤리타의 이중성 이미지 2

게서 느껴지는 농염함이 한꺼번에 자의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어 더욱 신비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구현되고 있다. 님펫의 이러한 상호모순성은 님펫과 연관된 모든 신화나 전설의 핵심이 되고 있다(김은진, 2001). 어른스러움을 가장한 채 얼굴과 스타일을 한껏 꾸며보았으나 그 나이에서 보여지는 숨길 수 없는 순수함, 어딘가 부조화되어 보이고 모호해 보이는 느낌이다. 슬프면서도 코믹한 블랙 코미디를 닮은 모호한 이중성이다. 여성의 완숙한 매력과 소녀의 순수한 보호본능이 합쳐져 인간의 감초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중적 모호함에서 느껴지는 섹시함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많은 비주얼적인 시도와 잡지화보, 패션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수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중성은 국내의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주로 형클어진 것 같은 헤어스타일과 몽롱한 듯한 무표정으로 나타나며, 내추럴하면서도 심플한 스타일로, 방치되거나 혹은 무심히 흘러내린 듯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에 많이 사용되는 패션아이템은 박시하고 루즈한 니트류나 셔츠류로, 마치 커다란 사이즈를 입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섹시하게 연출되며, 기존 것 특히 순수성을 연상하게 하는 아이템이나 그러한 스타일의 변형, 또는 색다른 코드를 통해 연출되어진다. 또한 포즈나 표정이 단정하지 못하게 흐트러져 있고 연출을 고려하지 않은 듯 무심해 보이거나 그 안에서 여성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그림 8(1)~8(2)>에서 보여지듯, 소녀시대와 마찬가지로 원더걸즈 역시 스쿨룩을 자신들의 패션 테마 중 하나로 연출하였으나, 원더걸즈의 스쿨룩은 약간의 변형으로 멤버마다 특색있게 코디해 입는 방식이다. 주로 셔츠와 타이를 중심으로 짧은 가디건, 베스트, 플리츠 스커트, 반바지, 서스펜드, 베레모 등이 사용되며 타탄체크를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즉 순수성을 대표하고 있는 스쿨룩에 다양한 코디와 무심한 듯한 포즈와 표정, 강한 메이크업을 통해 이중성으로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림 9(1)~9(2)>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즈의 스쿨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두 그룹 모두 같은 스쿨룩의 플리츠 스커트, 타이, 셔츠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포즈와 자세로 인해 하나는 순수성을 그리고 하나는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1) 변형 스쿨룩



(2) 이중성

<그림 8> 원더걸즈의 스쿨룩과 이중성 이미지



(1) 소녀시대



(2) 원더걸즈

<그림 9> 소녀시대와 원더걸즈의 스쿨룩

있다. 또한 <그림 8(2)>에서도 순수성이 가장 강한 칼라인 화이트를 중심으로 모두 소녀스러운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나 그들의 표정과 자세, 헝크러진듯한 헤어스타일과 합쳐져 단순한 순수성이라기보다는 보다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모호한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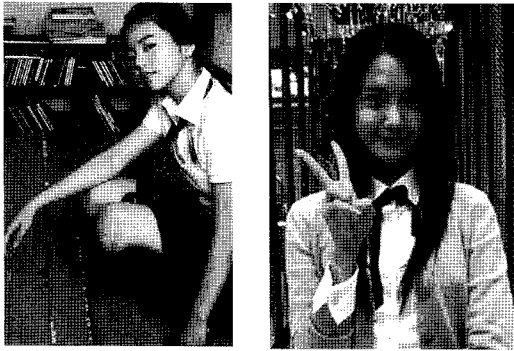
플리타룩과 관련한 패션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녀시대는 순수성에 그 초점이 두어지고 있으나 원더걸즈는 요부성과 순수성과 요부성을 모두 내재하고 있는 이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쿨룩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원더걸즈와 소녀시대는 그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녀시대의 경우

는 순수성에 중심을 두어 깨끗하고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반해 원더걸스의 경우는 아직 어린 소녀임을 고려해 순수한 이미지의 아이템과 칼라를 착용하고 있으나, 그 코디나 표현방법에 있어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표현함으로써 내재된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그룹의 차이점은 각 그룹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원더걸스의 소희와 소녀시대의 윤아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림

10(1)-10(2)>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화이트 셔츠, 타이, 보우, 가디건, 플리츠 스커트, 니렁스 양말 등 모두 스쿨룩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연출하는 방법과 포즈, 표정과 어우러져 하나는 순수성을<그림 10(2)>, 하나는 이중성<그림 10(1)>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소녀시대 윤아는 <그림 11(2)>에서와 같이 주로 화이트를 중심으로 된 동화 속 순수한 소녀와도 같은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또한 웨이브를 로맨틱하게 넣은 긴 머리 혹은 내추럴한 엽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러플, 프릴, 셔링 등의 디테일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그림 11(3)). 또한 <그림 11(1)>과 같이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밝은 표정으로 더욱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 원더걸스의 소희에게는 이러한 순수성보다는 보다 섹시하고 성숙한 느낌이 강하다. 그녀는 <그림 12(1)-12(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호피무늬의 피트된 원피스나 헐터넥 미니 드레스를 통해 요부적 이미지를 섹시하고 성숙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2(3)>에서는 화이트 셔링 블라우스와 레깅스를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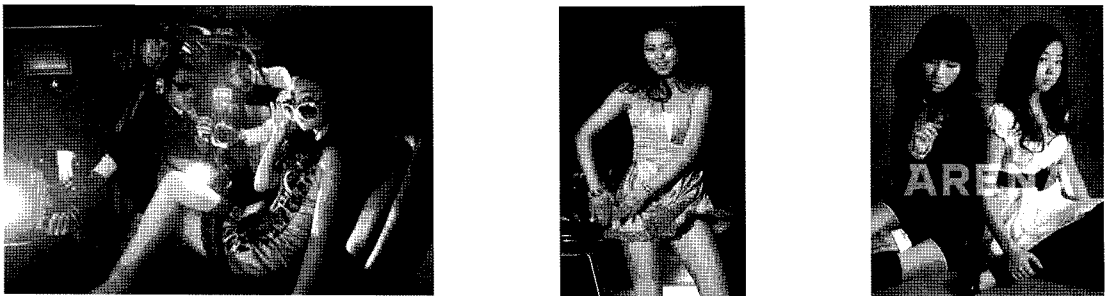
(1) 원더걸스 소희 (2) 소녀시대 윤아

<그림 10> 원더걸스 소희와 소녀시대 윤아의 스쿨룩



(1) 순수성 1 (2) 순수성 2 (3) 순수성 3

<그림 11> 소녀시대 윤아의 순수성 이미지



(1) 요부성 1 (2) 요부성 2 (3) 이중성

<그림 12> 원더걸스 소희의 요부성과 이중성

하고 있으나 그녀의 표정과 자세에서 웬지 모를 모호함이 감도는 이중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롤리타를 소설에 등장한 롤리타의 성격특성을 범주화하여 국내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여 롤리타 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롤리타의 특성을 어린애 같은 모습에다 창부의 매력을 지닌 님펫의 특성에 주목하여 순수성, 요부성, 이중성으로 구분하여 그 표현방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범주화 하고, 그러한 특성이 현재 국내의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그 나이의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패션에서는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짧은 기장의 스커트나 원피스로 대표되어지며, 프릴, 러플, 셔링 등의 로맨틱한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소녀시대의 이미지가 이와 연관된다고 판단되었다. 두번째, 요부성은 주로 피터되는 실루엣과 과도한 노출, 강한 메이크업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으며 원더걸즈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롤리타의 이중성은 순수성과 요부성의 양면을 지닌 특성으로 대중매체에서 다양하게 구현되어지고 있으며, 형클러진 헤어스타일과 몽롱한 무표정과 주로 순수성에 사용되는 아이템의 변형으로 역시 원더걸즈를 통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었다.

롤리타는 1955년 나보코프에 의해 탄생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우리 사회의 한 패션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원더걸즈와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하여 2008년까지 대중적 인기를 지속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사실은 롤리타적 특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고, 억제되어야 할 금지된 욕망이 물질주의 사회와 더불어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는 더욱 자유로워지며 사회는 상업적인 대중매체에서는 인간의 금지된 욕망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가 계속되고 인간의 감정표현의 규범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억제된 욕망은 죄책감 속에서도 롤리타를 계속적으로 사용 변형해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롤리타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우리의 문화 안에서 다양한 각도로 성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는 롤리타의 특성과 패션코드를 우리의 대중문화 중에서 원더걸즈와 소녀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롤리타룩의 대중문화에의 영향을 실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실증조사가 아닌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문헌연구로서 그 객관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더걸즈와 소녀시대만이 아닌 다른 대중매체에 관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연구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선. (2004).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에 나타난 미학과 도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김옥경, 한자영. (2003). *현대 생활속의 패션*. 서울: 학문사.
- 김은영. (2005). *Vladimir Nabokov의 Lolita 분석: 형식과 내용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진. (2001). *나보코프 장편 '롤리타'의 주인공들의 정체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 (2004). *라캉의 언어로 읽는 롤리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보코프, 블라디미르. (1955). *롤리타* (제15개정판). 권택영 역 (2005). 서울: 민음사.
- 모리스, 꾸피에르. (2001). *롤리타*. 임미경 역. (2003). 서울: 이룸.
- 손진숙. (2002). *Vladimir Nabokov 소설에 나타난 텍스트의 불확정성과 미학적 인식에 대한 연구: The Real Life of Sebastian Knight과 Lolita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주.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콤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만. (1993).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 롤리타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loom, H. (1993). *Lolita: Major literary characters*. New York: Chelsea.
- Boyd, B. (1991).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New York: Princeton UP.
- Nabokov, V. (1970). *The Annotated Lolita*. In Alfred Appel, Jr. (Ed.). New York: McGraw-Hill.